

한-베 마이데이터 워크숍

축사

2023. 9. 7.(목) 14:00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 7층 탕롱볼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어 : 찐짜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한국의 마이데이터 제도와 신용정보 인프라,
나아가 실제 적용 사례를 베트남에 소개하는
「한-베 마이데이터 워크숍」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공동 워크숍을 개최해 주신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 타 꾸옥 흥(Ta Quoc Hung) 의장님과
까오 반 빈(Cao Van Binh) 대표님,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한국-베트남간 금융협력의 중요성

베트남은 연간 GDP 성장률이 매년 5~8%에 달하는
고성장 국가입니다.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는 2035년까지의 국가 발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 Vietnam 2035 : Toward Prosperity, Creativity, Equity, and Democracy

그 일환으로 베트남 중앙은행은
수년전부터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전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은행업계의 디지털 전환계획 발표('21.5월)

금융산업은 실물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동시에 실물경제 성장에 따라 고도화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금융산업 또한
실물경제 성장에 따라 다변화하는 금융수요에 맞추어,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베트남 양국이 실물경제의 협력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처럼,
금융산업에서의 상호 교류도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산업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원료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이 산정되고,
그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대출, 보험, 보증과 같은 금융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좋은 원료를 통해 좋은 상품이 생산되는 원리는,
금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 서비스에서의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국의 데이터는 그간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현재도 그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행 2년차에 접어든 한국의 마이데이터는
대표적인 데이터 선도 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정보를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고,
금융상품도 맞춤형으로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신용점수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기준 누적 9,018만명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중복 포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 중심이었던 데이터 활용 권리가
정보주체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이동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최초로 데이터를 안전하고 빠르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 베트남 금융산업에서
펼쳐 보일 마이데이터는
이러한 한국에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베트남의 금융서비스 혁신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워크숍은
한국의 마이데이터 인프라가 어떻게 작동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과 한국의 금융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어져,
베트남의 금융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고
나아가 국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한국과 베트남 금융인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가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오늘 이 자리에서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어 : 감언)